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 영화 세계 탐구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감독 특집 프로그램 '동시대 시네아스트' 이탈리아 감독 선정

6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2024. 6. 5.~6. 9.)가 '무주 셀렉트 : 동시대 시네아스트'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알리체 로르바케르(Alice Rohrwacher) 감독을 선택했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무주 셀렉트 : 동시대 시네아스트'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알리체 로르바케르(Alice Rohrwacher) 감독을 선택했다.

초록빛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6월의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가 매년 영화 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무주 셀렉트 : 동시대 시네아스트' 프로그램의 올해 주인공으로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을 선정, 영화제 기간 동안 그의 영화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감독 특집 프로그램 '무주 셀렉트 : 동시대 시네아스트'는 전 세계 동시대 영화감독 중 영화 미학의 최전선에서 있는,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가진 감독 1인을 선택해 그의 영화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의 안드레아 이블로 감독을 시작으로 스웨덴의 루벤 외스틀룬드, 미국의 켈리 라이카트, 브라질의 클레베르 멘도사 필류, 일본의 하마구치 류스케, 프랑스의 미야 한센-러브 감독에 이르기까지, 지난 6년간 동시대 월드시네마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감독들을 국내 영화 팬들에게 소개해왔다.

올해 '무주셀렉트 : 동시대 시네아스트'에서 집중 조명할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은 2011년 장편 데뷔작 <천상의 몸>에서 성당에서 교리 수업을 받는 한 소녀의 눈에 비친 부조리한 세계를 사실적으로 담아내 칸영화제 감독주 жур에 초청되었으며, 이어 2014년 <더 윈더스>로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2018년 <행복한 라짜

로)로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해 네 번째 장편 영화 <키메라> 역시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받으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차세대 감독임을 인정받았다. 장편 이외에도 명품 패션 브랜드 미우미우가 기획한 '미우미우 여성 이야기' 시리즈에 참여해 단편 <데 데제스>(2015)를 연출한 바 있고,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단편 <어린 소녀들>(2022)을 연출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극 단편영화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전 세계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주었다. 특히 <더 윈더스>, <행복한 라짜로>, <키메라>로 이어지는 세 편의 영화들은 '이탈리아 정체성 삼부작'으로 불릴 만큼 가장 이탈리아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으며, 미학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동시대 월드시네마 안에서도 가장 깊이 있고, 창의적이며 특별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원 부집행위원장이자 프로그래머는 "영화라는 형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유 속에서 가장 이탈리아적인 소재를 가장 창의적이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담아내어 전세계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그의 놀라운 영화들은 무주를 찾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영화적 경험과 깊은 영감의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고 소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의 장, 단편을 상영하고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페셜 토크 시간 '토끼시네마'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영화제 개막에 맞춰 국내 주요 평론가들이 참여한 비평서를 발간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 사회적 리얼리즘과 미술적 리얼리즘을 유려하게 오가며 자신만의 영화미학을 구축하고 있는 현실과 상상의 시네아스트이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거장 알리체 로르바케르의 영화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초여름의 영화 축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5일(수)부터 9일(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성 기자

도내 14개 시군 '찾아가는 소리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연간 프로젝트 탈바꿈... 11월까지 다양한 공연 진행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가 연간 프로젝트로 탈바꿈하면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 나선다. 소리축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래 관객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국내외의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여왔다.



이에 올해는 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연간 기획함으로써 평소 만나기 어려운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도민들이 사계절 만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판소리 공연, 월드뮤직 등 장르도 다양해졌다. 첫 공연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일실 대리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00여 명이 대사로 뮤지컬 '삼양동화'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13일 오후 2시 순창군립도서관에서도 펼쳐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익산 금마도서관에서는 판소리를 배우고 감상하는 시간, 소리꾼 이용선이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15일 오전 10시 고창초에서는 입체적인 한지인형극으로 재탄생한 팔죽할멈 이야기 '동동동 팔죽할멈'을 어린이 250여 명이 관람할 계획이다. 이 공연은 17일 오전 10시 10분 진안 초립초에서도 펼쳐지며, 주천초·조림초·송풍초 어린이 60여 명이 함께 즐길 예정이다.

또 19일 오후 7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티에리 위에(Thierry Wüer)와 바이올린 연주자 클라라 세르나(Clara Cernat)가 '해설이 있는

콘서트: 루마니아 랍소디'를 선사한다.

5월 11일 오후 4시 정읍 이오일스페이스에서는 클래식컬한 봄의 낭만을 선사하는 두 팀의 무대가 준비됐다.

더불어, 18일 오후 4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군청과 협력해 마련한 '릴리 컴퍼니'의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남원, 김제, 완주, 장수, 무주에서 수준 높은 해외 팀의 공연과 월드뮤직 워크숍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앞으로 11월 30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송년 특별공연으로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종묘제례악'을 국립국악원 협력으로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기재부 공익법인 재지정

2029년까지... 후원자 가치 실현 등 예우프로그램 강화키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4일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9년까지 6년간이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팝프렌즈는 전주문화재단이 2021년 발족한 문화예술 후원회로 '누구나 같이 누리는 문화', '기업과 시민이 옹호하는 지역예술'을 목표로 시민, 기관, 기업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모금과 매개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460여 명의 시민과 45개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3억 5천여만 원의 재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다. 후원인이 키우는 예술나무 <이팝프렌즈 시상

식>은 매년 지역예술인 3인과 기획자 1인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역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후원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주 시민들의 문화권 확대를 위해 후원기업과 함께 만드는 <전주다북 음악회>는 올해로 4회를 맞는다.

또한 기업과 시민의 후원을 장려해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매칭그랜트 사업 <이팝플러스 후원더하기>와, 전주 향토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문화복지권을 확장하는 <찾아가는 정오의 음악선물> 등을 운영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후원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는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2023년 예술경영대

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발족 4년 차를 맞는 올해는 후원을 통한 예술인 창작여건 강화, 시민 문화참여 지원과 더불어, 후원자의 가치 실현을 위한 예우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후원의 모금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 후원자가 안심하고 후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의 공익법인 재지정은 전주문화재단과 이팝프렌즈를 향한 후원자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이 인정되는 소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팝프렌즈를 향한 아름다운 후원으로 모두가 예술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한국화 명인 묵호 채태병 화백 초대전 '승천하는 청룡'

정읍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시 생활문화센터에서 한국화 명인 묵호 채태병 화백 초대전 '승천하는 청룡'을 연다.

이번 전시는 청룡의 해를 기념하는 전시로 상상의 동물 중 하나인 용을 채태병 화백만의 색깔을 더해 웅장하게 표현했다.

예로부터 민간신앙 속 용은 물을 지배하는 신으로 농경민족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다. 또, 용은 위인과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면서 왕권이나 왕위를 상징하기도 했다. 임금과 관련되는 것에는 '용'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호칭하였던 기록이 그 흔적이다.

이번 전시는 오랜 세월 신성시 여겨진 용의 모습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고, 수묵채색 기법으로 섬세하고도 과감하게 용의 용맹함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채태병 화백은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개인전,



한일 국제 서화 교류전 등 다양한 국내외 전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제6회 무궁화미술대전 공모전에서 국회의장상인 종합 대상 수상을 수상하고 2020년 한국화 명인

인증을 받았다. 2023년에는 한국 작가 최초로 뉴욕 타임스퀘어 빅 스크린에 '현대미술계의 떠오르는 스타'로 소개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정은=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